숙녀로 돌아온 국민여동생

메트로 2013년 10월 8일 화요일 제2620호 www.metroseoul.co.kr

류현진 방망이로 체면치레

수능장 복도에 금속탐지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전자기기를 이용한 커닝 예방용 금속탐지기가 동원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7일 치러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이 주의해야 할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7일 발표했다.

수험생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불가피하게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험 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스톱워치와 문장반도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금지된다.

APEC 정상회의장 '미묘한 삼각관계'…더 가까워진 한·중! 더 멀어진 한·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숙소인 아요디아 리조트 발리 그랜드볼룸에서 석달여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비공개 대화에서 "북핵 보유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사진 왼쪽). 박 대통령은 이날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호텔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 참석한 가운데 나란히 앉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300만원짜리 명품백 든 애완견

수십만원대 목줄에 사람 먹기도 아까운 유기농 사료까지…프리미엄 시장 폭발적 성장

3년 전 몰티즈 두 마리를 입양한 주부 신명연(57)씨. 세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신씨에게 강아지는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 구성원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신씨가 애완견을 위해 쓰는 돈은 한 달에 50만~70만원. 신씨는 "강아지가 유일한 가족이라 생각하니 돈이 아깝지 않더라"며 "평소 유기농 사료만 먹이고 명품 옷도 자주 사 입힌다"고 말했다.

신씨처럼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기르는 국내 인구는 다섯 집 중 하나. 동물 수만도 550만 마리에 이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이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다.

◆ 지난해 시장규모 2조 육박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시장은 1조8000억원 규모로 2020년에는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산업은 보다 '고급화' 되고 있는 추세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남다른 '애견 사랑'을 과시하는 소비자들 덕분에 애견용품 시장에는 때아닌 '명품 바람'이 불고 있다.

300만원을 훌쩍 넘는 도그 캐리어부터 50만~100만원짜리 목줄까지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선보인 제품은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다.

◆ 국내 패션업계 잇따라 가세

상황이 이렇자 국내 패션업계들도 애견용품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LG패션 헤지스 액세서리는 최근 애견 브랜드 '헤지 도기'를 론칭했다. 강남 상권을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 중인데 가격대는 벨트가 2만~3만원, 의류가 4만~5만원, 가방이 8만원 선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일반 사료보다 2배 이상 비싼 프리미엄 간식과 유기농 사료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마켓 옥션의 반려동물 카테고리 매출 1위 제품은 '애완동물용 간식'. 이 중 맛과 건강까지 고려한 '수제 간식'은 지난해보다 70% 이상 많이 팔렸다.

이런 경향에 맞춰 풀무원은 지난달 '개밥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풀무원은 합성첨가물, 닭간과 같은 부산물을 뺀 대신 원육, 통곡물 등을 넣은 프리미엄 사료를 출시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일반 사료보다 비싸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그 캐리어(위)와 목줄

◆ 애견 호텔, 유치원 등도 호황

반려동물 전용 호텔, 유치원 등 기타 프리미엄 서비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아이파크백화점 '플렛 유치원'은 전문 트레이너가 반려견의 사회화·예절 개선 훈련 등을 놀이를 통해 가르쳐주는 교육기관. 주 5일로 운영되는 유치원의 월 이용료는 50만원이다. 주인이 출장,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울 경우 반려동물을 대신 맡아주는 애견 호텔도 인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가족화·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애완견, 애완묘를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 프리미엄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www.metroseoul.co.kr
2013년 10월 8일 화요일

어른 되려면 먼 부산국제영화제

기자 수첩
탁 진 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사람에게 있어서 열여덟 살은 한 해만 지나면 성인이 되는 나이다. 그런데 어느덧 18회가 된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의식은 어른이 되기엔 아직 멀어 보인다.

올해는 개막하자마자 레드카펫 참석 문제로 불거진 강동원과 영화제 측의 진실 공방, 대형 기획사 매니저의 술자리 폭행 등 영화인들의 불성실한 언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한편으론 영화제를 찾은 시민들의 행동도 적지 않은 골칫거리였다.

개막식 티켓을 정상가의 2~3배 부풀려 파는 암표거래가 활개를 쳤고, 거리는 관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신문지, 음식점과 주점의 홍보 전단지로 몸살을 앓았다. 심지어 3일 밤 개막식이 열린 영화의전당 앞에서는 축제 같은 분위기를 노려 노점상에서 김밥을 훔치는 남자까지 목격돼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는 영화제 측의 관리 부실 문제도 적지 않다.

개막식 티켓 5000석 중 무려 3000석 이상을 주최 측이 영화와는 별 관계없는 스폰서 초청용으로 뿌렸다고 하니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로서는 암표라도 고마운 심정일 수밖에 없다. 또 거리의 신문지도 영화제 측에서 장소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불법인 암표나 쓰레기 투기를 용인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제야 최고의 영화제라는 자금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영화인들의 부단한 노력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수반되어 할 것이다.

"포스코, 이래도 됩니까?" 참여연대가 포스코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자료 허위기재를 건과 관련, "계열사 전체로 확대해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통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그룹사 동반성장 실무협의회 녹취록을 공개, "포스코의 거로 허위(?)를 특위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뉴스

손학규 화성갑 불출마

"난 정권 내준 죄인이라 나설 때 아니다"… 서청원과 빅매치 불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와 관련해 불출마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손 고문은 7일 오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밤새 뜬눈으로 고민한 결과 역사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준 죄인으로서 지금이 나설 계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게 됐다"며 "이게 내 최종 입장"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조선 의원 35명이 이날 오전 손 고문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재설득에 나섰지만, 손 고문은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결국 그간 진통을 겪어온 손 고문의 차출론이 무산되면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빅매치'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미룬 화성갑 보궐선거 공천심사위원회를 열고 화성갑 지역위원장인 오일용 예비후보를 공천하기로 확정했다.

보궐선거 깨끗하게 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단속요원 다짐식에서 요원들이 선거를 존중하고 공명하게 치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오전에 열린 공천위에서는 경북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허대만 현 지역위원장을 낙점했다.

이에 따라 화성갑 보궐선거는 서청원 전 대표와 오일용 후보, 포항 남·울릉 재선거는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허대만 후보가 격돌하게 됐다.

손학규 차출론에 고심했던 새누리당은 이로써 화성갑은 물론 안방 격인 경북 포항 남·울릉 등 재보선 지역 2곳에서 무난한 승리를 낙관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황우여 "증세 없는 재원마련 최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해 "증세 없는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부패 척결과 지하 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활기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나 후퇴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윤한봉기자

검찰, 장세동 소환 조사
전두환 비자금 의혹 관련

5공 '실세'로 통하는 장세동 전 안전기획부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 1일 장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전씨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장씨를 비롯한 당시 5공 관계자들을 여러 명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경준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완간

작가 박경리가 1969년부터 집필을 시작해 26년 동안 연재한 대하소설 '토지'가 1994년 10월 8일 완간됐다. '토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평사리와 간도의 용정, 그리고 진주와 서울 등 도시를 무대로 한말 최주 가문의 주손 '최서희'와 그 주변 인물의 삶을 통해 질곡 많았던 근·현대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첫째 조 간의 몰락과 재기는 한민족의 몰락과 재건을 뜻할 수 있다. 박경리는 현실 비판을 강하게 다룬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주목 받았다.

시진핑 "북 핵실험 반대"

박 대통령과 양자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하고 대북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만성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하는데 북한은 핵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북한이 경제 발전에 주력하도록 중국이 많이 설득하고 힘써주기를 부탁드린다. 또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려면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이번이 우리의 3번째 만남"이라며 "이것은 우리 양국이 얼마나 긴밀하고 소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중국은 북핵 보유를 반대하고,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북 핵실험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을 주제로 선두발언을 하고 자유무역 체제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APEC 회의 중간중간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페루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을 만나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김민준기자

"너무 무거워"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뜰 세종예인마당에서 열린 점심 콘서트 정오의 예술무대에서 시민들이 마린보이 나홀로 서커스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1조원 해외로 새나갔다

조세피난처 국부유출 40개 업체 적발… 뉴스타파 공개 업체 13곳 포함

조세피난처로 국부를 유출한 40개 업체가 적발됐다. 해외로 빼돌린 금액은 자그마치 1조123억원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세피난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유출 액수에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된 13개 업체의 재산 도피 등 불법 의혹 거래 7389억원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명단 182명 가운데 현재까지 169명의 신원을 확인해 수출입 불법 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했다.

"새해 달력 벌써 나왔네" 7일 오전 서울 중구 ... 홍보도우미들이 JW중외그룹이 제작한 2014년 달력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 관세청 특별단속 적발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40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법인세 등 15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나머지 35개 업체의 내국세 탈세 여부도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유형 가운데 5개 업체가 수출입 가격 조작으로 6301억원의 재산을 조세피난처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류 수출업체 A사의 대표는 작고한 회사의 창업자인 아버지가 해외에 은닉한 1000만 달러를 회피하려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명의 홍콩 비밀 계좌에 재산을 숨겼다.

IT 수출업체인 B사는 홍콩 법인을 설립했다가 법인 지분을 회사 대표 명의의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매각한 뒤 물품은 자기가 수출해 벌어들인 수익금 662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은닉했다.

또 은닉 자금 가운데 100억원은 외국인 투자로 가장해 국내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다른 국내 상장회사 주식을 샀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불청객 '10월 태풍' 전국에 비

'다나스' 오늘 밤이 고비

가을 태풍 '다나스' 영향을 받아 8~9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북상하는 제24호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8일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7일 예보했다. 강수확률은 곳에 따라 60~90%다.

서울·경기 전라남북도·제주도는 8일 밤 한때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9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나스는 남부지방을 거쳐 동해안 울릉도·독도 방향으로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illegible]기자

검찰, 효성 탈세 본격수사

검찰이 7일 효성그룹 탈세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조 회장 일가의 효성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곡2구역(벽산블루밍) 재개발임대아파트 30년 국민임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중 부산광역시장이 주택을 매입하여 부산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전용면적(39.50㎡) ※도면상의 상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오시는 길(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산진구 부전2동 384-7)
- 지하철 2호선 부암역 3번 출구
- 임대문의 051) 810-1324, 1328

BMC 부산도시공사

■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268번지 일원(총567세대 중 임대 51세대)

■ 임대대상(203동)

공급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층수	구조 및 난방	최초입주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39	39.50	20.00	27.55	83.67	51	8	43	12	복도식 기름난방	2014. 4월 [illegible]

■ 임대조건

형별(㎡)	기본 임대조건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전환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	잔금(입주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39	22,760,000원	4,050,000원	18,710,000원	213,100원	46,490,000원	69,250,000원	0원

※ [illegible]

■ 우선공급(1순위) 및 일반공급(2~6순위)

순위	순위조건
1순위 (우선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자 [illegible]
2순위	금곡2구역의 [illegible]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3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illegible] 무주택세대주로서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자
4순위	[illegible]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illegible] 가. 도시 [illegible]사업 나. 도시 [illegible]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공급일정 및 신청장소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당첨자발표	계약체결(계약)	입주지정기간	신청장소
1~4순위	13.10.21~10.23 (10:00~17:00)	13.11.22(금) (16:00)	13.12.16(월) ~ 13.12.18(수)	미정 (분양주택의 입주일과 동일)	부산도시공사 3F(접수처)
5~6순위	13.10.24~10.25 (10:00~17:00)				

※ 모집관련 상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게시판 모집공고문 참조

산복도로 스마트폰 영상제

부산시는 스마트폰으로 지정 장소에서 영상물이나 작은 스토리 영상, 인증샷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면 우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산복도로 스마트폰 두른 영상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사)솔로산복커뮤니티가 주관하는 이번 영상제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가 장비 없이 있는 그대로의 풍경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찍는 영상 작품 및 특정 장소에 펼쳐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샷 등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작품 접수는 e메일(sanbogfilm@gmail.com)로 오는 12일까지 하면 된다.

이번 영상제 작품 시사회 및 시상식은 오는 26일에 개최된다.

영상제에 출품할 작품은 ▲산복도로 역사 및 부산의 근현대사와 직간접 관련된 내용 ▲산복도로 주변 생활상(가로 환경, 시장, 식당, 생태 환경, 주택, 텃밭 등) ▲168계단, 까꼬막, 닥밭골, 감천, 절경로 등 산복도로 주변 테마 이야기 ▲풍광 ▲인물 등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오는 12일까지 부산역 광장에 관광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1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가할 경우 해설사와 동행하는 이바구길 답사를 한다. 또 168계단 오르기 게임과 서구 닥밭골 벽화마을에서 골목길 미로찾기게임 등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에게 기념품과 부상을 수여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결혼이민자 한국말 대회

부산시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567돌 한글날(9일)을 앞두고 8일 오후 2시30분 여성회관 소강당에서 이민자들의 한국어 실력을 겨루는 '2013 결혼이민자 한국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결혼이민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내고, 한국어 능력 향상 및 우리말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수강생과 방문 교육 한국어 서비스 대상 가정 중에서 반별 예선을 통과한 결혼이민자 10명 등 다문화 가족 50여 명이 참여한다.

지역축제 성공 '아낌없는 지원'

대선주조 인력 투입·환경 정화·건전음주 캠페인 등 다각도 협찬

부산 대표 향토기업 BN그룹 대선주조(주)가 지역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을 자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선주조는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잇달아 열리고있는 지역 축제에 대규모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협찬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BN그룹 대선주조 임직원 300여 명은 지난 3일 자갈치시장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등 대규모 환경 정화 활동과 건전 음주 캠페인을 벌였다.

조의제 BN그룹 회장 등 대선주조 임직원 300여 명이 3일 부산 자갈치시장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이날 행사는 9~13일 열리는 제22회 부산자갈치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축제 분위기 띄우기를 겸한 것으로, 조의제 BN그룹 회장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 사장단까지 대거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자갈치 일대 청소에 앞서 '부산의자랑 자갈치축제', '자갈치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영도 절영도로~영도다리~자갈치시장으로 이어지는 7km의 갈맷길 코스를 걸으며 시민들을 상대로 축제 사전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부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부산불꽃축제의 경우 BN그룹과 대선주조는 지난해까지 연속 8년 동안 13억여 원을 현금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메인 스폰서 등록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의제 BN그룹 회장은 "지역 축제의 성공을 위해 지역 기업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동원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선주조는 지난 3~6일 열린 기장군 철마한우불고기축제에도 인력 지원 등 각종 협찬을 했으며, 축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선주조 기장공장 견학을 유치하는 이색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태풍 피해 도로로 올라온 소형 어선들 제24호 태풍 다나스(DANAS)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소형 어선들이 올려져 있다. 다나스는 현재 중심 기압 983hPa, 최대 풍속 초속 43m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시간당 36km의 속도로 북서쪽에 오는 9일 밤과 10일 새벽 사이 부산 남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부산기상청은 예보했다. /뉴시스

명품 간판 한눈에 본다

사인엑스포 전시회 열려

부산의 명품 간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부산시는 아름다운 간판 문화 정착을 위한 '2013 부산 사인엑스포(SIGN EXPO BUSAN 2013)'를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시청 1층 로비와 도시철도 연결 통로에서 개최한다.

부산시와 (사)부산시 옥외광고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아름다운 세계도시 부산의 간판 문화 조성'을 테마로 부산옥외광고 대상 공모전 수상 작품 전시, 특별 테마기획전,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사인엑스포에서는 ▲상작 모형 광고물 부문 조정환씨의 '쇠부리터' ▲창작 디자인 광고물 부문 이관득씨의 '두부 애(愛) 빠지다'

▲우리 동네 예쁜 간판 그리기 부문 정다소 어린이의 '책장이 잘 넘어가 서점' 등 3개 분야 옥외광고공모전 대상작을 비롯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상 작품들을 선보인다.

창작 모형 광고물 '쇠부리터'는 순수한 한글로 지어진 상표명과 소재 활용성, 조형성이 뛰어나고 창작 디자인 광고물 '두부 애 빠지다'는 두부의 원재료인 콩을 모티브로 한 그래픽 패턴과 부드러운 선을 살린 로고 타입 등의 조형성 및 도시 미관 기여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담합 4곳 적발

부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가 발주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4개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가 2012년에 실시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관계자 4명이 2012년 7월 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전 영업한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선정하기로 최종 합의한 후 낙찰 예정자가 제일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세척 약 먹기 힘들면 보리차 이용을

닥터 Q&A

다사은 내과 비우진 원장

Q 32세 여자인데 변비도 심하고 가끔 혈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하려다가 대장내시경 하기 전에 대장을 비우는 약을 먹기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요?

A 대장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변이나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대장내시경을 할 땐 대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른 대장정결제를 드시는 것을 힘들어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대장정결제를 드실 때는 생수보다 보리차 등금레차를 만들어서 시원하게 드시는 것이 훨씬 편하고, 구역질이 심하면 띠더사탕을 같이 먹으면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생수에는 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드시기에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요사이에는 알약과 가루약으로 나온 대장정결제가 있습니다. 알약이나 가루약으로 된 정결제는 물을 조금 적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수가 있을 수 있으니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검사 며칠 전부터 대변을 묽게 만들면 대장정결제 양을 줄일 수가 있으니 개인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장을 비울 방법으로 대장 검사 전 처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장을 잘 비워서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송월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담균호
사장·편집인	김광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명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3-2100
독자센터	(02)721-9893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서울특별시 가00898

정관신도시 4베이 중소형 단지

화제의 분양

가화만사성 정관타운아파트

부산 정관신도시에 처음으로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아파트가 들어서 부산지역 주택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가화건설은 이번에 입주자에게 준비한 가화만사성 정관타운 아파트(조감도) 560가구를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가화만사성 정관타운의 매력을 분석해본다.

가화만사성 정관타운은 전용면적 59㎡ 500가구, 84㎡ 60가구로 구성된다. 계약금은 5%(300만원)로 일반 아파트의 절반 수준이다.

정관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소두방공원이 바로 옆이며 정남향 및 남동향 위주로 배치됐고 동 간 거리가 최대한 확보돼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으로 마련된다.

계약금 5% 5년 임대후 분양… 주변 롯데 아울렛 개장

최근 들어선 프리미엄 아울렛(신세계) 개장으로 문화 생활 및 소비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가장 눈여겨볼 특징은 임대아파트에서는 보기 드물게 방 4개가 모두 남쪽을 향하는 4베이 구조를 채택한 것이다. 입주자 성향에 맞춰 2개 또는 3개의 방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분양 전환형 임대로 5년 또는 2년6개월 임대 의무 기간 경과 후 입주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분양 전환 가격은 분양 전환 시점의 시세보다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게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산정 기준을 마련해 분양 전환 후 매매 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입주는 오는 2015년 3월이며 입주자 모집 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가로, 분양 전환 시점 역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한다.

또한 2015년 롯데 아울렛 개장으로 수요의 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춰 맞춤형 임대료를 제공해 주거 비용 및 금융 비용, 세금 등을 절세함으로써 가계 저축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51)724-1888 /

금투협 파생상품 특별과정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 부산지회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24일부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상품 특별과정'을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과정은 일반투자자들이 파생 상품의 개념과 특징 및 투자 시 유의 사항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합리적인 파생 상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주가지수 선물·옵션, 선물·옵션 투자 전략, 파생결합증권, 금리·통화 선물·옵션이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051)667-9719

수제 명차 만나보세요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10월 한 달간 백화점 1층 정문 광장에서 일본 수제 명차인 '미쓰오카 자동차'를 전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제공

영남지역 국도 일제정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영남지역 국도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영남지역 국도 2728㎞와 터널 112개소, 교량 1594개소 등을 대상으로 차량 200여 대와 650여 명의 인력을 투입, 도로 등 시설물 정비에 나서는 동안 차량 통행에 불편이 예상돼 국민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이번 주요 정비 대상은 여름철 고온현상과 수해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노면, '배수시설물', '탈색된 도로 차선',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 '낙석 위험지구' 등이다.

또 국도변 제초 작업 등 청소와 함께 무분별한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강설 등 결빙에 대비해 제설 자재를 비축하고 제설 장비를 점검해 활동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몽골 영화 '리모트 콘트롤' BIFF 경쟁부문 처음 올라

비암바 사키야(51) 감독의 영화 '리모트 콘트롤'이 몽골 영화 최초로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에 초청됐다. 몽골 영화가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사키야 감독은 러시아 영화학교에서 촬영을 전공한 후 작가, 감독, 촬영감독, 라인 프로듀서, 편집기사 등 광범위한 경력을 쌓았다. 대표작으로는 '뎃츨'(1996), '개들의 저지'(1996) 등이 있다.

'리모트 콘트롤'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 사는 소년이 맞은편 건물에 사는 아름다운 '하누'에게 빠져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장애 어르신 전문 요양시설 문연다

영도구 파랑새노인건강센터서 오늘 개원

시각·청각·언어 장애 어르신을 위한 전문 요양보호시설이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문을 연다.

부산시는 장애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식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도구 파랑새노인건강센터에 '장애노인요양센터'를 설치하고 8일 오후 3시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이경혜 의원이 2011년 장애 노인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을 만들 것을 제안한 데 이어 부산시가 연구 용역을 통해 장애 노인의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전문적인 요양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노인요양센터가 문을 열게 됐다.

장애노인요양센터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의 판정자 중 시각·청각·언어 등 복합 중증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곳 장애노인요양센터에 입소 대상 노인이 500여 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 중 우선 12명으로 시범 운영 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145곳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다나은내과 www.danan.kr
국민 암 예방 수칙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라
2. 주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 날 정도로 운동하라
3. 음식을 짜게 먹지 않고, 탄 음식을 먹지 말라
4. 발암물질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작업장 안전수칙을 지켜라.
5.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아라
6.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7. 안전한 성생활을 하라
8. 술은 하루 두잔 이내로만 마셔라
9.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꾸준히 유지하라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암 검진을 빠짐없이 받아라
(출처: 2006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 국민 암 예방수칙에서)
코로 하는 구역질 적은 위내시경 ▶당일 대장내시경◀
다나은내과의원
진/료/문/의
639-5333~4
현대백화점 옆 지하철 범일동역 7,9번 출구

10월 5일
한화그룹 창립 61

Hanwha

함께 더 멀리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한화가 더 큰 내일을 향해
함께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market index <7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94.42	528.64	2.84	1072.50
(-2.59)	(-3.57)	(+0.01)	(+1.50)

중소기업 100여개 구조조정 대상 등급

STX와 동양그룹 등의 대기업 붕괴에 이어 100개사가 넘는 중소기업이 조만간 구조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 채권단은 금융권에서 50억~500억원을 빌린 중소기업 중 부실 가능성이 있는 1100여 개 업체를 세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신용위험 평가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100여 개사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인 C~D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측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97개사였는데 올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40개사로 지난해 36개사보다 10%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 당국이 엄격한 평가를 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 121개사 기록을 넘을 수도 있다. /채윤정기자

뉴스 & 뉴스

씨 없는 홍시 "단감보다 달콤"
7일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경북 청도에서 수확한 씨 없는 홍시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청도 홍시는 평균 15~19brix로 단감보다도 당도가 높다. /연합뉴스

주식투자 10% 모바일 거래

●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주식 투자자 10명 중 1명이 모바일로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 1~9월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스마트폰 등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거래 비중이 9.21%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1.99%, 2011년 4.90%, 2012년 7.30%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해 14.03%에서 올해 17.18%로 증가폭이 더 컸다. /김현정기자

직장인 53% 부모용돈 챙겨

● 직장인의 절반 정도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직장인 1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부모님께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린다'고 답한 비율은 53.4%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직장인의 42.2%, 30대 63%, 40대 이상 77.5% 등 세대가 높을수록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직장인은 미혼 직장인(48.9%)보다 기혼 직장인(68.6%)이 더 많았고, 액수는 연평균 32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SKT '광대역 LTE' 서비스 서울·수도권 지하철 제공

● SK텔레콤이 8일부터 서울·수도권 지하철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7월 대전·광주·대구·부산 지하철에 'LTE-A' 구축을 완료한 SK텔레콤은 이번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 광대역 LTE 개통으로, 전국 지하철 총 25개 노선, 565개 지하 역사에서 두 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외국계 기업 놀이터된 '일몰법'

업종불문 적용탓 일부 수주전서 재벌 대신 독식
내년 시행 앞두고 IT서비스업계 국부유출 논란

내년 2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업종과 광고업종의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계 자본 및 해외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받는 상황이 속출해 국부 유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에 의해 오히려 재계가 역차별을 받는 등 역풍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가 넘는 기업을 규제한다는 것으로, 내년 2월 시행 시 국내 규제 대상 기업은 195곳에 이른다. 특히 시행령에는 향후 지분율을 30%에서 15%로 낮출 방침이어서 규제 대상 기업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 대상 기업이 내부 거래를 진행할 경우, 이를 증여로 판단해 일감몰아주기 비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그룹별 전체 내부 거래 규모에 최고 과징금 부과율인 10%를 적용해 해당 기업이 내야 할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규제 대상 업종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가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장치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추진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IT 서비스업종의 경우 태생 자체가 그룹의 보안 및 전략적 결정을 위해 계열 기업이 통합해 진행하는 것인데 이를 오너의 이익을 위한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예컨대 광고 분야의 경우 자동차·전자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한 신제품을 마케팅하는데 외부 광고업체에 이를 맡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때문에 외국계 자본 및 해외 다국적 기업에 몰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을 담당할 업체로 외국계 기업인 한국IBM이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국내 IT 서비스업계 '빅 3'로 불리는 삼성SDS·LG CNS·SK C&C는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또 미국계 AT커니코리아가 지난해 인수한 대우정보시스템과 일본 티큐앤씨먼트가 최대 주주인 쌍용정보통신은 국내 IT 서비스업계 빅3가 참여하지 못하는 틈을 타 국내 공공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광고업종도 마찬가지다. SK에너지는 최근 주유소 TV광고업체로 외국계 광고회사인 금강오길비를 선정했다.

SK텔레콤도 LTE 광고업체로 TBWA라는 외국계 업체를 선정했고, SK이노베이션도 기업 PR 광고를 TBWA에 맡겼다.

3D 디스플레이 보며 공중부양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자정보통신 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3D 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용한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요양급여 부풀리면 최대 5배 벌금 물리기로

내년 2월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돼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 기간에 비례한 과징금을 내고 요양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업무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 기준은 ▲50일 초과 부당금액의 5배 ▲31~50일 4배 ▲11~30일 3배 ▲10일 이하 2배 등이다.

경기 집 팔아도 서울 전세 못 구한다

사상 첫 가격 역전… 340만원 더 들여야 가능

경기·인천지역의 집을 팔아도 서울 전세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최근 서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의 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8235만원으로, 수도권(경기·인천) 평균 매매가인 2억7895만원보다 340만원 더 비쌌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가 수도권 평균 매매가를 넘어선 것은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올 들어 서울의 평균 전세가와 수도권의 평균 매매가 간 격차 추이를 보면, 지난 1월만 해도 서울 전세가는 평균 2억7179만원으로 수도권 평균 매매가(2억8286만원)보다 1107만원 낮았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서울의 전세가가 수도권 매매가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9월 서울 평균 전세가(2억8133만원)는 1월 대비 1000만원 가까이 뛴 반면, 수도권 평균 전세가(2억7897만원)는 400만원가량 떨어졌다. 이에 두 가격 간 격차는 236만원 차이로 역전됐다.

이달 들어서는 서울 전세가 고공 행진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방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한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감 '회장님 출석부' 채워질까

포스코 정준양·롯데 신동빈·GS 허창수 등 증인 호출돼 참석여부 주목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100여 명의 기업인과 재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호출된 가운데 이들의 국감 출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 각 상임위와 재계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 정준양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석채 KT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국내 굴지의 기업 총수와 대표이사 등을 호출했다.

하지만 이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오너들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31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이유로 증인 채택된 이석채 회장의 경우 이미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르완다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불참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는 정준양 회장의 경우 올해도 불참할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포스코가 지난달부터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공정거래협약 자료 제출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면서 국감 불참 시 정치권으로부터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출장이 잦았던 만큼 여전히 해외 출장의 가능성은 남겨놓은 상황이다. 포스코 측은 정 회장의 일정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다.

신동빈 회장도 국감 출석과 관련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때 불참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백화점과 중소 상인 상생 협력 관련 이슈로 증인 신청을 요청받은 신 회장은 이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상임위 고발 시 3년 이하의 징역형마저 선고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 정부의 재계에 대한 잇따른 압박도 재계 오너들을 고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관행적인 도피성 해외 출장이 해답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일부 업종의 경우 국내외를 오가며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권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과의 주요 거래 등으로 연례 재계 오너들의 불가피하게 해외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마냥 정치권의 국감 일정에 맞추라는 것은 부담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호주서 날아온 화장품 '줄리크' 7일 오후 서울 청담동에서 열린 호주 화장품 브랜드 '줄리크(Jurlique)' 공식 론칭 행사에서 모델들이 미스트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 BMW 누른 폭스바겐

9월 수입차 중 판매량 1위

폭스바겐이 국내 수입차 시장 부동의 판매 1위 BMW를 제쳤다.

지난해 12월에도 BMW를 따돌리긴 했지만 12월은 통상 물량 조정 등이 빈번하는 탓에 정식 판매 기록으로 보기는 어렵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9월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한 2457대의 판매고와 함께 1위 자리에 올랐다.

특히 월간 베스트셀링 톱 10 리스트에 단일 브랜드 최다인 4개 모델을 포진시켜 탄탄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대상 차종은 7세대 신형 골프(2.0 TDI 블루모션 3위, 1.6 TDI 블루모션 4위, 사진)와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2위), 파사트 2.0 TDI (6위) 등이다.

폭스바겐의 인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골프의 경우 현재 대기 건수만 2000대 이상에 달해 고객 인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콤팩트 수입차 시장을 개척한 폴로 1.6 TDI R-라인 역시 식심에 따라 고객 인도가 상당수 지연되고 있다.

소형 SUV '티구안'은 동급 수입차 기준대 유일하게 9개월 연속 베스트셀링 톱 10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성훈기자

암·골절·사망 보험 하나로 보장 해결

3년 전 암보험에 가입한 최모(46)씨는 최근 예기치 못한 골절상으로 병원비 부담을 겪었다. 또 주위의 잇따른 부고 소식에 사망보험의 필요성도 느끼게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입한 여러 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골절보험과 사망보험까지 가입하기엔 망설여진다.

AIG가 선보인 '무배당 슈퍼(Super)이른병이기는보험1304'는 이 같은 보험 고민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 하나에 가입하면 선택계약을 통해 암·골절·사망에 모두 대비할 수 있다.

암 진단 시 진단금은 물론, 선택계약을 통한 수술비, 입원일당, 통원방사선 약물치료비가 별도 보장된다. 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금도 보장돼 암 이외의 큰 질병도 대비한다.

이미 가입한 다른 암보험이 있더라도 보장 금액이 적다면 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것도 암 보장을 든든하게 하는 방법이다.

골절 진단 시 수술 의료비용과 함께 화상 진단 의료비용이 보장된다. 또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넉넉하게 지급해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문의 080-432-0168 /김현정기자

080-432-0168
AIG

공인 2급 웃음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자격강습
웃음! 건강! 행복을 위하여
웃음치료·레크리에이션을 배워봅시다!
▶개강일시: 2013년 10월 17(목) 오후 7시 10분
▶강습기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10분 ~ 9시) / 12주 (3개월)
웃음건강박수·대~한민국 박수 창시자
조영춘 박사의 최고의 지도자가 교육함
문의 및 접수: ☎441-7895
http://www.rec-power.com
사단법인 세계웃음건강박수협회·한국웃음치료사연합회
韓國놀이文化부산광역시협회

매주 |금| 저녁7시 tvN 방송 / 10월 11일 첫 방송

고용노동부

커진 덩치로 흥행 시너지

'게임빌, 컴투스 인수' 바라보는 게임·증권가 시각

모바일게임 전문 메이커인 게임빌이 경쟁사인 컴투스의 지분을 인수하며 사실상 1세대 모바일게임 쌍두마차가 통합됐다.

그렇다면 게임과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결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일단 게임업계에서는 규모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양사 모두 안드로이드와 iOS 마켓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개발력과 마케팅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치고 나온 CJ E&M의 한 이사는 "검증된 기업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올린다면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다만 두 회사가 넥슨·엔씨소프트처럼 각개전투를 할 경우 힘든 경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증시 전문가들은 게임빌의 컴투스 인수를 긍정 일변도로 평가했다.

최유미 신영증권 연구원은 "게임빌과 컴투스는 전통적인 모바일게임 강자로 여겨지나 최근 대형 게임업체들의 등장으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활로가 필요했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대형사와 견줄 만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 호재"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양사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했다.

최 연구원은 "캐주얼한 게임 위주의 컴투스와 미드코어 게임 중심의 게임빌이 합쳐지면 추후 다양한 장르의 신작 게임 라인업 보강이 예상된다"며 "또 앞으로 컴투스는 자회사로서 개발력에 집중하면서 게임빌이 퍼블리싱 능력을 발휘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승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게임빌은 매달 1300만 건 이상의 신규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으며 컴투스는 7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번 인수로 서로의 고객 기반을 공유하면서 마케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로써 신작 게임의 흥행 가능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주가에 영향을 주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황 연구원은 "(이들의) 3분기 실적도 전분기 대비 인상적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 경쟁사들 대비 흥행 게임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수로 인한 일시의 펀더멘털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훈·김현정기자 zen@metroseoul.co.kr

미러리스 최초 180도 회전화면 삼성전자는 미러리스 카메라로는 처음으로 180도 회전하는 화면을 장착한 신제품 NX300M을 7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원서 혼합형 자동초점 등 다양한 기능으로 주목받았던 전작 NX300에 180도 회전하는 미러리 의 화면을 적용했다. /삼성전자 제공

'팬택 AS센터' 이마트 입점

이마트가 스마트폰 AS 센터 역할을 병행한다.

팬택(대표 이준우)은 국내 최대 유통기업 이마트에 팬택 서비스센터를 입점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팬택 서비스센터는 10월 중순부터 이마트에 입점한다.

최근 서비스센터 리뉴얼 작업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팬택은 고객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이마트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했다.

중심 상권과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이마트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서비스센터 증설 작업을 진행해 기존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완, 고객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휴 계약으로 팬택은 휴대전화 전문 서비스센터로는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팬택은 이마트 김포공항점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1차로 주요 거점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이마트 15개 점에 팬택 서비스센터를 입점시킬 예정이다. 일정이 완료되면 팬택 서비스센터는 현재 87곳에서 102곳으로 늘어난다. /박성훈기자

눈 편한 LED라이트…한밤 독서본능 깨우네

예스24 '크레마 샤인'

여전히 국내 e북 소비는 저조하다. 업계에서는 100권 팔릴 때 2권 정도가 e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책을 안 읽기로 유명하다. 직장인 한 달 평균 독서량은 한 권에 채 되지 않는다. 이는 후진국 일부 국가보다도 저조한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전용 단말기를 따로 사서 읽어야 하는 e북은 출발부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예스24, 알라딘 등이 손잡은 한국이퍼브가 어두운 곳에서도 책을 볼 수 있도록 한 단말기 '크레마 샤인'을 출시했다.

HD 해상도의 전자잉크 패널에 LED 프론트 라이트를 탑재해 밤에 조명 없이 책을 볼 수 있다.

낮에도 잘 읽지 않는 책을 밤에 읽을 수 있게 한 것이 차별화가 될까. 실제 써보니 사용 전 다소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바뀌었다.

때의 잠잠이나 야간 시 비행기를 타면 식사 시간 전까지 한동안 조명을 끄는 경우가 잦다. 물론 좌긴 이곳에 달린 개인 조명을 쓸 수 있지만 조도나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때 크레마 샤인이 제격이니, 종이책을 보는 듯한 특유의 편안함에 눈부심이 없으면서 선명한 글씨를 보여준다.

이 제품은 512MB의 메모리와 8GB의 저장 공간을 갖췄으며 전작 크레마 터치(215g)보다 30% 적은 135g의 초경량 무게를 구현했다.

가격 9만9000원에 장만할 수 있지만 현재 PDF 파일을 볼 수 없는 것은 아쉽다. /박성훈기자 zen@

다음 '단풍지도 서비스'

다음이 단풍 절정 시기와 단풍 명소를 쉽게 확인하고, 추천도 받을 수 있는 2013 전국 단풍지도 서비스를 PC는 물론 모바일 다음앱과 모바일웹에 오픈했다.

다음 단풍지도에서는 지난달 말 설악산 단풍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중순 예상 두륜산으로 이어질 전국의 단풍놀이 추천 명소 16곳의 절정 시기와 등산 코스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PC·모바일에서 키워드 '단풍축제'를 검색하면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의 일정, 장소, 소개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박성훈기자

건설기계운전 교육생모집
■ 교육과정: 굴삭기 지게차 운전
■ 교육기간: 2013. 10. 7~12. 31(3개월)
■ 모집기간: 2013. 9. 9(월)~10. 14(월)
■ 제출서류
■ 특전
교육비 무료, 기숙사 숙식제공
■ 문의처
두산인프라코어㈜기술교육센터
www.doosanedu.co.kr
두산인프라코어

고용노동부 지정
100%전액 무료교육생모집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특전
대우직업능력개발원
TEL 970-0012 www.dwit.or.kr
지하철 7호선 공릉역 1번 출구

비변비형 과민성장증후군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국화과 생약인 백출을 추출하여 만든 SKI3246의 비변비형 과민성장증후군 환자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피험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
▶ 만 20세에서 75세로 비변비형 과민성장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
▶ 6개월 전에 증상이 시작되고 지난 3개월 동안 적어도 1개월에 3일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복통 또는 복부불편감이 있는 분
▶ 1주일 배변횟수가 3회 이상인 분
참여에 따른 제공
임상시험과 관련한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조영술 검사 및 각종 검사와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드는 비용은 무료이며 (단,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조영술 검사의 경우 5년 이내의 검사 결과가 없을 경우에 한함)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선정되어 참여하시는 분은 소화기내과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게 되십니다. 또한 매 방문당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받게 되십니다.
방문 횟수
최대 17주 동안 최대 5회 방문 (임상시험용의약품 복용 기간 : 12주)
임상연구 실시기관 및 연락처
모집 문의안내 | 1544-4088

브로드웨이 불후의 명작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MAN OF LA MANCHA
2차 티켓오픈 10월 8일 오후 2시
정성화 조승우 김선영 이영미 정상훈 이훈진 서영주 외

ESS어학원과 함께하는 외국어 하루한마디
누가 내 얘기하나. 귀가 근질근질하네
영어 My ears must be burning right now
일본어 耳が痒いので 誰かが私のうわさをしているかも。
근로수강 가능
www.ess.co.kr

"김수현 떴다" 5000여 일본팬 열광

배우 김수현(사진)이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궜다.

김수현의 팬미팅 '올웨이즈 김수현 2013 오딩 안 재팬'이 5일 도쿄 도요스시티홀, 6일 고베 국제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총 5000여 명의 현지 팬들이 참석한 이번 팬미팅은 지난 6월 시부야 공회당에서의 공식 팬클럽 창단 기념 팬미팅 이후 계속되는 앙코르 공연 요청에 힘입어 성사됐다.

김수현은 이 자리에서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높은 인기를 모았던 '해를 품은 달'의 OST 수록곡 '그리움만 쌓이네'를 열창하는가 하면 팬들과 게임을 하고 요리를 선보이는 등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2시간여의 팬미팅을 이끌었다. 마지막에는 가수 이문세의 '빗속에서'를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선보여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응원해주는 일본 팬 여러분께 감사하며 이번에도 큰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김수현을 축하하기 위해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에 함께 출연했던 이현우가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수현은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SBS '별에서 온 남자'(가제)를 차기작으로 확정짓고 올겨울 안방극장에 컴백할 예정이다. /유지현기자

'꽃보다 남자' 아류? 방송 보시면 알아요

'상속자들' 이민호 "느끼는 대로 연기하고 있다"

SBS 새 수목극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의 남녀 주인공 이민호(오른쪽)와 박신혜가 7일 제작발표회에서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SBS 제공

배우 이민호가 자기작 캐릭터가 출연작 '꽃보다 남자'(이하 '꽃남')의 구준표와 비슷하다는 주위 우려를 일축했다.

SBS 새 수목극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에서 고등학생인 재벌가 아들 김탄 역할을 맡은 이민호는 7일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꽃남'이 끝나고 4년여가 흐르고 나니 기분이 기쁨도 슬픔도 없이 일직선으로 흘러가더라. 20대가 지나기 전에 어릴 적 천진난만한 모습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밝은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4년 전과 현재 스물일곱 살의 이민호는 많이 다르다"면서 "대본에서 느끼는 대로 편하게 연기하고 있다. 방송을 보면 주위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대본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 역시 "'꽃남'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러나 아류라는 이야기를 들을 거였다면 애초에 이민호를 (재벌 고등학생으로)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 재미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방송이 나가면 그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9일 방영될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상속자들이 좌충우돌한 여주인공을 둘러싼 채 벌이는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다.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등 히트작을 쏟아낸 김 작가가 집필을 맡고 이민호·박신혜·김우빈·크리스탈(에프엑스)·강민혁(씨엔블루)·박형식(제국의아이들) 등 신세대 톱스타들이 총출동해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극중 엔터테인먼트사 상속녀 이보영 역을 맡아 본명인 정수정으로 정극 연기에 첫 도전하는 크리스탈은 "시트콤과 달라 부담되고 어렵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지원기자 gak1427@metroseoul.co.kr

한채영 '예쁜남자' 복귀 검토

지난 8월 첫 아이를 출산한 한채영(사진)이 KBS2 새 수목극 '예쁜 남자'에서 장근석의 상대역을 맡아 안방극장에 복귀할 전망이다.

7일 소속사에 따르면 한채영은 '예쁜 남자' 독고마테(장근석)의 조력자로 활약할 매력적인 이혼녀 홍유라 역을 제안받고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출연이 성사된다면 출산 후 첫 출연이자 3월 종영한 KBS2 '광고천재 이태백' 이후 8개월 만의 복귀다. 천계영 작가의 동명 만화가 원작인 이 드라마는 독고마테가 예쁜 얼굴을 무기로 여자들을 통해 성공을 꿈꾸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렸다. 다음달 첫 방송. /박지원기자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28화 글 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HNT 하나투어리스트

마감임박

BIG SALE

Special Day! 매일매일 놀라운 가격

중국 VS 동남아

천년의 중국, 백년의 중국! 중국여행

	상품	일정	가격
1	북경 ★ 만리장성/마사지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279,000부터
2	황산 ★ 힐링여행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599,000부터
3	상해/항주/주가각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249,000부터
4	장사/장가계/원가계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6일	529,000부터
5	곤명/석림/구향동굴 ▶10월~11월 매주 월, 수, 목, 금, 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6일	499,000부터
6	홍콩/마카오/심천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599,000부터
7	석가장/태항산/면산/평요고성 ▶10월~11월 매주 수, 토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	399,000부터

놀라움과 모험이 가득한 세상! 동남아여행

	상품	일정	가격
1	대만(야류, 온천, 화련)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649,000부터
2	방콕/파타야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6일	299,000부터
3	보라카이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329,000부터
4	푸껫 휴양지의 여왕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6일	299,000부터
5	세부 낭만의 섬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6일	249,000부터
6	캄보디아(앙코르왓)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399,000부터
7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	549,000부터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www.hanatourist.com

챔피언은 바뀐다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가을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한다. 어느새 서늘해진 공기와 접촉했을 때, 문득 높아진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 직장 위 달력이 마지막 분기를 향해 치닫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은 기억 속 여린 사람을 향해 내달려간다.

A 회장은 수천억원의 매출을 내는 회사를 운영 중이다. 필자를 만날 때마다 좋지 않은 안술을 내쉬곤 하는데, 이유인즉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서다. 그렇다고 한순간 결심을 하고 회사의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상품의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기도 어렵다. 제2의 도약을 위한 투자가 발생시킬 위험을 감수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B 사장은 동종 업계의 경쟁자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가 만든 제품은 디자인, 소재, 마감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나다. 많은 돈을 연구 개발(R&D)에 쏟아붓고 있으며, 한국을 넘어 세계적 브랜드를 만들고자 노력하니 부러움과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렇다고 한숨이 적은 건 아니다. 머지않아 자신이 만든 제품과 브랜드를 시장이 알아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 기다림은 끝이 없다. 주변에서는 수준을 조금만 낮추면 돈을 벌 것이라 말하지만 이제까지 가져왔던 신념과 태도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두 사람은 오래전 지신의 곁을 떠났던 한 직원을 그리워하는 공통점을 가졌다. 규모만큼이나 지속 가능한 매출 방식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던 직원.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 해도 시장이 외면하는 것이라면 그 가치는 반 토막이라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주장했던 직원을 아쉬워했다. 지금 주변에 남아있는 직원은 경영자의 말 한마디에 눈치를 살피고 몸을 사리고, 입을 닫은 채 고개를 끄덕이는 인물들뿐이라는 하소연이다.

최근 한 골프용품 회사가 '챔피언은 바뀐다'는 의지와 함께 제품 광고를 하고 있다. 내가 챔피언인 시간도 유효하고, 경쟁사가 챔피언인 시간도 유효하다. 언젠가 내려올 게 분명한 자리라면 그 자리에 다시 오르려 하기보다 새로운 자리를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 욕심을 내는 것보다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택해야 경영자도 회사도 직원도 흥을 낼 수 있다.

/인피니트컨설팅(www.ifc.co.kr) 대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6						7
	8		7		6			
				5		2		
9		1	4					
5		4				1		8
					3	7		9
		7		9				
			3		1		8	
2						6		1

	3		4	2			7	6
1			9					8
						1		
					6	7		
			8	4	7			
		5	3					
		8						
6					4			2
4	7			1	5		6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보누스
한사 스도쿠 플래티넘
(바른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재산도 없이 빈껍데기만 남아 비영리단체 홍보 맡으면 제격

하이닌 남자 49년 8월 20일 음력 오전 2시30분

Q 사회와 국가에 좋은 일을 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싶었지만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이 빈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하나요?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요?

A 이화춘우(梨花春雨)라 하여 배꽃이 봄비를 맞으나 실력이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운함이 있습니다. 천월날 지살(地殺)은 조직에 안주하지 않고 얽매지 않은 활동을 한다. 하지만 분주한 일상 속에 이해심이 깊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여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그러나 식상(食傷) 생성하는 재물의 원동력이 약하니 신념과 현실에 괴리가 있고 사주 원칠에서 술미형살(戌未刑殺)을 받고 있는데 이는 재물이 모이기 전에 흩어지는 형세입니다. 농협이나 영농단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는 4대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업무 탓에 잔기침 잦은데 건강 중요하니 항상 체크해야

HYN 남자 66년 4월 23일 음력 오후 4시

Q 방역회사에서 소독제나 방충제 살포하는 일로 먹고살아왔습니다. 항상 피로하고 잔기침이 많이 나옵니다. 쉬는 날은 산에 가는 등 건강에 항상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팔자인지요, 직업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지만 내가 나를 모르겠습니다.

A 고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축인오 당화삼(寅午戌 화국)이 많으니 병(病)이라 하여 체제로 버려질 재가 있거나 허약해진다. 육십갑자에서 신궁 생일이 음력 4월에 태어나 화(火)기가 강하다. 사주팔자 무술(戊戌) 대운에 2013년 계사(癸巳)년이라 무계합화(戊癸合火)로 투토와 계수가 합하여 화로 변화가 되고 있으며 화국(火局)을 불로 무리를 이루므로 식재 食財 보그로 재물이 금수(金水) 기운이 약해지는 운이라 금(金), 목(木) 상쟁이 되어 2015년 이후부터 위험하다. 정해져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근원은 운에서 오는 노력이니 염려하는 것보다도 장수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니 늘 체크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8일 (음력 9월 4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제일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60년생 결정한 일은 변수 있어도 번복하지 마라. 72년생 모든 일은 쉬쓰는 대 달렸다. 84년생 임만큼 소속한 전략은 없다.

소 49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바쁘구나. 61년생 남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73년생 뜻을 이루려면 목표를 분명히 할 것. 85년생 모임에 가면 태풍의 눈이 된다.

호랑이 50년생 굴곡진 인생에 축복이 내린다. 62년생 변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74년생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는 하루. 86년생 집단의 절어져 실수 않도록 조심.

토끼 51년생 마음 가는 대로 움직여라. 63년생 사고 싶으면 결자해지 필요하다. 75년생 경쟁자의 화력 요구에 무조건 일하라. 87년생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다.

용 52년생 곳곳이 생겨 한턱 낸다. 64년생 타인의 합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76년생 남의 단점 들추면 잃는 게 더 많다. 88년생 궁들던 일이 쉬시되어 기쁘다.

뱀 53년생 한 수 가르침 뒤 단칼 처 할 것. 65년생 해묵은 고민 해결돼 어깨 가볍다. 77년생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 움직여라. 89년생 인연과의 사랑은 더 깊어진다.

말 42년생 근검에 겨워나 재비은 있다. 54년생 엉터리 투자 정보에 속지 마라. 66년생 먼저 양보하면 이익 많아진다. 78년생 경이 흐리지 말고 냉정히 판단하라.

양 43년생 속내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55년생 북쪽으로 가면 곳곳 일 생긴다. 67년생 떠난 버스 되돌아보지 마라. 79년생 막혀 부치는 일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다.

원숭이 44년생 과음에 실언하면 직격탄 맞는다. 56년생 부동산 매매 신중하라. 68년생 공적인 일의 독단적 판단은 위험 부른다. 80년생 상사의 취향에 맞추도록 하라.

닭 45년생 강보할 큰 화끈하게 하라. 57년생 막혔던 일은 순조롭게 풀린다. 69년생 돈으로 인한 어려움 해결되니 걱정 마라. 81년생 구직자는 뜻밖의 행운 따른다.

개 46년생 허물은 가릴수록 더 드러난다. 58년생 좋은 운세가 찾아오니 잡아라. 70년생 배우자 걱정에 기분이 좋아진다. 82년생 인기가 오를수록 더욱 겸손할 것.

돼지 47년생 재능기부에 적극 참여하라. 59년생 땀 흘린 만큼 결과가 풍성하다. 71년생 못마땅해도 주변의 충고 들어라. 83년생 마음먹은 일은 추진해도 무방하다.

넓어진 음악 스펙 깊어진 감성 노래

'모던 타임즈'로 돌아온

아이유

국민 여동생이 반전 매력을 드러냈다. 아이유(21)가 물오른 여성미를 머금고 1년5개월 만에 무대로 돌아왔다. 7일 정규 3집 '모던 타임즈'를 발표하는 그는 이날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진화한 음악성과 깊어진 감성을 드러냈다.

#이번 앨범 키워드는 변화

이번 앨범의 키워드는 '변화'다. 소녀 이미지를 앞세워 깜찍한 매력으로 남성 팬들을 사로잡았던 그는 앨범 발매에 앞서 순차적으로 선보인 티저 이미지에서 숙녀로 성장한 모습을 강조했다.

"소속사에서는 섹시미를 보여주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티저 이미지와 영상은 일종의 트릭이죠. 신선함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고 이전에 했던 것과 많이 달라진 것은 없을 거예요. 제가 섹시함을 노릴 깜냥이 되나요. 평생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크게 욕심 안 내요. 호호호."

하지만 소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싶은 속내는 감추지 못했다. 그는 "팬들이 어색하게도 느꼈을 텐데 생각보다 좋아해줘서 '나도 어린 걸 해도 되는구나'라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분홍신' 무대 연출도 이를 반영한다. 안데르센의 동화 '빨간구두'에서 모티브를 딴 곡으로 빅밴드 스윙 사운드를 기본으로 하며 고전적이면서 빈티지한 요소를 담았다. 그는 "무대를 보면 악마나 마녀 같은 느낌이 들 거다. 옷은 까맣고 입술은 빨갛다 보니 못돼 보일 거다. 거기에 취해서 활동할 계획이다"고 기대를 답부했다.

#가인 언니 눈빛연기 배워

13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다양한 음악 시도, 세대와 장르를 망라한 여러 뮤지션과의 협업이다. 중견 가수 최백호, 양희은,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 남성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 등 화제의 라인업은 눈길을 사로잡았다.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가수로 최백호를 꼽은 그는 "(최백호) 선생님은 신사적이다. 내게 아직도 '아이유씨' '아이유양'이라며 존댓말을 하신다. 송구스러우면서 뵐 때마다 반하게 된다. 자주 뵙고 같이 노래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한낮의 꿈'에서 호흡을 맞춘 양희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혼자 부르시는 게 더 좋았다"며 존경심을 드러냈다.

'누구나 비밀은 있다'를 함께 부른 가인과는 곡 작업 외에 재킷 사진 작업도 같이 진행했다.

그는 "섹시한 매력에서 언니에게 밀리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너무 밀려버렸다"며 "참 멋진 언니고 이번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눈빛 연기를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에는 스윙재즈·보사노바·라틴팝·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수록됐다. 또 '싫은 날' '보이스 메일' 등 2곡을 작사·작곡했고 '을의 연애' '기다려' 등 2곡을 작사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이유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3집 정규 앨범 '모던 타임즈'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스윙재즈 등 다양한 장르 수록
4곡 자작… 소녀에서 숙녀로
섹시미 큰 욕심 없어요 호호호

#1위 한다면 안무 80% 소화

여성 솔로 가수 대표 주자이자 음원 차트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그가 현재 차트를 장악하고 있는 버스커버스커와 벌일 경쟁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월에 이렇게 많이 컴백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가수들이 많이 컴백할수록 음원이나 차트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 많은 분이 들어줄 거라 생각해요. 걱정보다 훨씬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위에 대한 욕심은 숨기지 않았다.

"안무를 짜면서 핸드 마이크로 할지 이어 마이크로 할지 고민했어요. 안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어 마이크가 좋지만 핸드 마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한다면 이어 마이크로 안무의 80% 이상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아이유는 10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인다.

/유순호기자 sunho@metroseoul.co.kr

사진/로엔엔터테인먼트 디자인/김아람

star bag

한국가수 첫 보그 표지모델

월드스타 **싸이**가 패션잡지 보그의 이탈리아판 표지를 장식했다.

소속사는 7일 "싸이가 보그의 남성판인 루오모 보그의 10월호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면서 "한국 아티스트로는 최초며 한국인으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이후 두 번째"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촬영에서 마이클 잭슨·레이디 가가 등과 작업한 유명 패션 니릭터, 사진작가와 참여해 월드스타로서의 위엄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수술

그룹 2AM의 **정진운**이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 부상을 당했다.

6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에서 '한류 드림 콘서트'를 마치고 상경하던 중 자신이 탄 차량이 문경새재 터널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25t 트럭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정진운은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고 발바닥이 10cm가량 찢어져 입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는다.

"퇴사 이유는 셋째 임신 때문"

윤소정 SBS 아나운서가 퇴사했다.

7일 방송계에 따르면 윤 아나운서가 지난달 30일 SBS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입사 12년 만에 마이크를 내려놓은 까닭은 셋째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SBS 9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윤 아나운서는 최근까지 SBS '12시 뉴스'를 진행했다.

뉴욕서 한글 티셔츠 배포

가수 **김장훈**이 9일 한글날을 맞아 미국에서 우리말 알리기에 나선다.

소속사는 7일 "뉴욕대(NYU) 한인 학생회와 함께 8일(현지시간) 뉴욕 워싱턴스퀘어파크와 뉴욕대 김멜룸에서 두 가지 한글 디자인의 티셔츠 400장을 배포하는 행사를 연다. 다음달에도 1000장을 나눠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장훈이 올봄 뉴욕에서 초청 강연을 할 당시 현지 한국 학생들로부터 제의받아 성사됐다.

<일본 온라인 쇼핑 사이트>

김재중 6관왕 "인기 이정도"

첫 정규앨범 발표 앞두고 관심집중 이례적

JYJ 김재중(사진)이 첫 정규앨범 발표를 앞두고 세계 각국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7일 "이달 말 발매 예정인 김재중의 솔로 정규앨범은 일본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라쿠텐에서 1억2000개가 넘는 전체 상품 기준에 주문량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예성 구매 랭킹, CD·DVD 예성 구매 랭킹, 전체 CD·DVD 예약 등 총 6개 부문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앨범으로는 이례적인 관심이다. 지난달 정규앨범 발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 팬들이 공동 구매를 준비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싱가포르의 유명 무료 신문인 마이페이퍼는 최근 "김재중이 록 장르의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투어를 이어간다"는 내용과 함께 김재중의 첫 솔로 앨범인 '마이'가 한국 차트와 일본 예약 주문 차트를 모조리 휩쓸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김재중은 첫 솔로 미니앨범에서 로커로 변신해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앨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겁다"며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터키, 그리스, 페루 등 유럽이나 남미 지역의 팬들도 앨범 발매 소식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의 수록곡 '원키스'는 일본·싱가포르·대만 등 9개국 아이튠즈 록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빌보드 월드앨범 차트 2위, 대만 및 일본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재중은 이번 앨범 발표 후 다음달 2~3일 서울과 15~1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티아라 반전매력 입고 컴백

티아라가 더블 타이틀곡을 내세워 13개월 만의 국내 활동에 전념한다.

티아라 소속사는 7일 "[illegible] 댄스곡 '넘버나인'과 SG워너비의 '[illegible]' 을 연상시키는 미디엄 템포 곡 '느낌 아니까'를 더블 타이틀곡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느낌 아니까'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 라인과 애절한 가사가 어우러진 [illegible] 감정을 극대화한 [illegible] 공동 작곡한 곡이다. '넘버나인'에서는 [illegible] 고스란히 드러나는 [illegible] 에서 부는 노래로 티아라의 새로운 매력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티아라는 10일 [illegible] 미니앨범 '어게인'을 발표하고 두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도 함께 공개한다. /유순호기자

국대급 힙합 뮤지션 다 모인다

스탠드업 코리아 12일

힙합이 올해 가요계 트렌드를 이끄는 장르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내 대표 힙합 뮤지션이 총출동해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인다.

7개 대표 레이블 및 크루 소속 26개 팀이 12일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2013 더 크라이―스탠드 업 코리아' 무대에 오른다. 더 크라이는 5~7, 8월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돼 1만9000여 명을 불러모은 브랜드 공연으로 이번 무대는 시리즈 완결판으로 힙합 팬들의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은 레이블 및 크루별로 총 7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올여름 디스전으로 맞붙은 아메바컬쳐와 브랜드뉴뮤직 소속 래퍼들의 무대는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다. 아메바컬쳐에서는 자이언티와 프라이머리·리듬파워가 출연하고 브랜드뉴뮤직에서는 스윙스·버벌진트·산이·범키·피타입 등이 나선다.

예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리쌍(사진)은 리쌍컴퍼니라는 이름을 달고 막강한 팬덤을 불러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불한당크루에는 가리온·넋업샨·본킴이, 실력파 레이블로 떠오르는 일리네어레코드에서는 빈지노와 도끼가 출격한다. 스윙스가 디스했던 박화열즈 크루의 제이통·화나가 열기를 끌어올리고 하이라이트 레코즈 소속 헬로윕토·비프리·오케이션 등도 무대에 오른다.

공연기획사 측은 "한국 힙합의 초석을 다진 뮤지션부터 힙합의 미래를 이끌어갈 래퍼들의 조합은 올해 불어닥친 힙합의 열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30%할인쿠폰
토토의 움직이는 숲
일시 2013. 10. 21(월) 19:30 장소 소극장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국열차
일시 2013. 10. 28(월) 19:30 장소 대극장 관람등급 15세 관람가

나이 들기 쉬운 건조한 환절기엔

어린 얼굴로 꽉 잡아주는 모공보습

AQUA FORCE
EXTRA LOTION
OIL CUT
ORBIS

"삼겹살·한우 30% 싸게 팔아요" 7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직원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전국 소매가 평균보다 최대 30% 싸게 판매하는 삼겹살과 한우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연간 190억원 마진을 축소해 삼겹살과 한우를 연중상시저가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대생 절반 진통제 오용

통증따라 선별 않고… '생리 2~3일전 복용' 효과 몰라

여대생들 10명 중 5명이 통증이나 성분 구분 없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등 여대생들의 진통제에 대한 상식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아는 것이 약입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병구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팀과 함께 여대생 88명을 관찰한 결과 통증이나 성분 구분 없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절반(48.9%)에 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대생들이 진통제를 복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통(42.9%) 및 생리통(42.2%)이며, 여대생들의 51.1%(45명)는 통증의 성격에 따라 진통제를 구분해 복용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통증별로 진통제를 구분하지 않거나 그런 방법을 모른다고 답한 여대생이 30.7%(27명)에 달했다. 특히 나머지 18.2%(16명)는 '약국에서 주는 대로 복용한다'고 응답해 진통제를 선택할 때 약사나 전문가를 통해 통증에 따른 진통제 선별 상식 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생리통 진통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생리시작 2~3일 전에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 대다수가 잘못된 시점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리통 진통제 복용 시점에 대해 묻은 결과에서 '생리 시작 직전 후에 진통제를 복용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20.2%(23명)에 그쳤으며 44.7%(51명)는 '생리통을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참았다가 복용한다'고 응답했다. 생리통이 심해도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여대생들도 31.6%(36명)에 달했다.

진통제의 성분 구분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도 진통제 구입 후 약 성분을 확인하는 이는 9.1%(8명), 구매 전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진통제를 구입하는 경우는 2.3%(2명)에 머물렀다.

진통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입할 때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증상에 따라 구분하여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병구 교수는 "진통제일수록 성분 확인 및 성분 구분에 따른 복용법을 알아둬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성분인지 적절한 복용 시점과 복용 주의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송재용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잘나가는 담배 '라크' 가격인하 눈길

200원 내려 2500원 판매

한국필립모리스는 국내 최초 1mg 담배 라크 프리미엄 원 가격을 2700원에서 2500원으로 200원(7.4%) 인하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최근 1mg 담배를 선호하는 성인 흡연자가 늘어 이 시장에서 라크 프리미엄 원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동계 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mg 담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09년 25.3%에서 2013년 29.5%로 4.2%포인트 증가했다.

라크 프리미엄 원은 송골새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형상의 패키지 디자인과 특유의 부드럽고 순한 맛으로 국내 성인 흡연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가격을 인하한 라크 프리미엄 원은 기존과 동일한 타르 및 니코틴 함량(타르 1.0mg, 니코틴 0.1mg)으로 변함없는 맛과 품질을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박지원기자

캐주얼 슈즈만 모아 최대 50% 할인

레스모아 한달간 진행

신발 멀티숍 레스모아가 7일부터 한 달간 '캐주얼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닥터마틴·클락스·로버스·캐터필라 등 캐주얼 브랜드 슈즈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캐주얼 슈즈를 구매할 경우 현민화 한 가닥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로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결제시점에 5000원을 할인해주고 현대카드로 결제 시 10% 포인트 차감 할인을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별 혜택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이 기간 가을을 대표하는 아이템인 워커·앵클부츠부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히든 웨지힐 스니커즈, 단정한 윙팁슈즈, 옥스퍼드화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캐주얼 슈즈를 만나볼 수 있다.

/박지원기자

이대병원 개원 20주년 '행복한 200년' 공표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2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개원 20주년을 맞아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이 자리에서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엠블럼과 슬로건 '건강한 동행 20년, 행복한 미래 200년'을 공표했으며 10월 한달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까지 병원 로비에서는 그동안 이뤄졌던 의료봉사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개최되며 교직원 체육대회인 '한마음축제', 여성암 정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암환자를 위한 '친환경 장터' 등도 한달 내내 펼쳐진다.

유권 이대목동병원장은 "이대목동병원은 이제 서서울 지역 대표 대학 병원을 뛰어 넘어 전국적인 병원으로 성장했다"면서 "앞으로 2017년 제2부속병원의 성공적 개원을 위한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없어서 못바르는 에센스 체험 기회

뷰티업계 샘플행사 다양

화장품은 직접 얼굴에 발라봐야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주요 뷰티브랜드들이 자사의 신제품·베스트셀러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CNP차앤박화장품은 7일부터 일주일 동안 'CN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한다. CN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은 '꿀 에센스'란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프로폴리스를 주성분으로 한다.

CNP 차앤박화장품 공식쇼핑몰에서 체험신청을 한 선착순 1만명에게 CNP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체험분과 앰플 3총사로 잘 알려진 뮤제너 앰플과 '비타 화이트닝 앰플'의 체험분을 함께 증정한다. 제품 배송은 10월 17일 이후 일괄적으로 배송된다.

이니스프리는 신제품 포레스트 포맨 퍼펙트 올인원 에센스 출시를 기념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체험 프로모션을 10월 한달간 벌인다.

이 기간 '남자 피부나이, 거꾸로 간다!'라는 콘셉트로 실제로는 정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지만 뒤로 가고 있는 듯한 트릭아트를 활용한 캠핑카를 운행해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 퍼펙트 올인원 에센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샘플을 증정하고 룰렛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수능생 '한달 뒷심' 살려줄 보양식 세트

강강술래 한우불고기 30% 할인 판매 행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건승을 기원하는 응원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수능 D-30일인 8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수능대박기원세트(한우불고기 900g 2팩)를 30% 할인된 1만8000원에 판매한다.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보충에 좋은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500ml×5팩 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ml×5팩 10인분) 2만2000원에 30% 할인해 선보인다.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100% 한우 갈빗살을 사용한 힘찬한우떡갈비(3세트 1080g 4만2000원)와 아미노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두뇌 활성을 돕고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 한돈너비아니(3세트 1080g 2만5200원)도 각각 30% 할인한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티켓도 증정한다.

지난 1929년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네 명의 청춘 남녀가 사랑과 명예·꿈을 걸고 벌이는 인생 승부를 짜릿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류수영 김지우 이하늬 등이 출연한다.

/박지원기자

'스포티 캐주얼'로 고민 끝

가을 축제 패션 어떻게

축제의 계절 가을이다. 지난주 세계불꽃축제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축제를 보다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때와 장소에 걸맞은 옷차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일교차가 큰 날씨인만큼 보온성에 중점을 둔 스타일링은 필수다.

◆ 데님으로 스타일·실용성 둘 다 잡다

활동량이 많은 축제에선 캐주얼한 복장이 인성맞춤이다. 가을이면 유행에 상관없이 사랑받는 데님은 특유의 질기고 튼튼한 소재 때문에 야외 활동에 적합하다. 이때 걸치기 쉬운 바람막이 점퍼나 카디건 등을 준비하면 쌀쌀한 밤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신없이 축제를 즐기다 보면 가방·모자 등 소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다. 또 장시간 걸어야 하는 행사에서는 가벼운 운동화를 신어야 발이 편안하다. 최근 유행하는 원색의 워킹화나 톤다운된 스니커즈 등이 제격이다.

◆컬러·패턴 주목 '나도 축제의 여신'

수많은 인파 속에서 돋보이고 싶다면 화려한 컬러와 패턴이 들어간 아이템을 골라야 한다.

빨간색의 미니스커트는 발랄하면서도 섹시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때 관식 또는 화색 계열의 상의를 매치해 컬러 밸런스를 맞추면 한결 멋스럽다.

소품 역시 튀는 컬러와 디자인을 매치한다. 하트 패턴의 백팩은 사랑스러운 느낌을, 네온 컬러의 손목시계는 어두운 밤에 반짝 빛나며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패션 홍보 대행사 유끼커뮤니케이션 김민정 주임은 "야외 축제·행사가 잦은 가을엔 레이어드 스타일링을 통해 일교차를 극복할 수 있다"며 "활동량이 많은 축제에선 스포티한 캐주얼룩으로 편안함과 개성을 동시에 뽐내라"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웨지힐 부츠 신고 편안한 워킹

가수 가인이 볼거움 유행할 부츠를 신고 날씬한 각선미를 뽐냈다. 가인은 신발 브랜드 크록스와 협력한 패션 화보에서 귀여운 트렌치코트에 '레이웨지 레더 부츠'를 매치해 심플한 매력을 발산했다. 가인이 착용한 레이웨지 시리즈는 편안한 쿠션감의 웨지힐 스타일로 부츠 외에 레더 부티, 글로즈드 토 슈즈 등 총 3종으로 출시됐다.

뉴스 & 뉴스

쇼핑 플랫폼 앱 '쇼핑백' 출시

● 하나보드림이 국내 최초의 쇼무 밍족을 위한 쇼핑 앱 '쇼핑백'을 선보였다. 쇼핑백은 시중에 출시된 쇼핑 앱들을 한데 모아 보여주는 플랫폼 개념의 앱으로, 오픈마켓은 물론 종합 쇼핑몰·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의 쇼핑 앱으로 연결된다. 여기에 SNS 기능을 접목, 팔로어를 통해 다른 가입자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보고 세일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오토그라프 롯데百 상륙

● 영국의 패션 브랜드 막스앤스펜서는 서브 브랜드 '오토그라프'의 단독 팝업스토어를 10일까지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디헤이브 매장에서 진행한다.

오토그라프는 30~40대 여성들을 위한 브랜드로 보디라인을 살려주는 팬츠, 몸에 잘 맞는 원피스나 스커트, 테일러링이 좋은 재킷, 니트 등의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콜맨 반다나 시리즈 5종

캠핑 브랜드 콜맨은 카우보이를 연상케 하는 컬러와 패턴을 적용한 '반다나 디자인 시리즈'를 내놨다고 7일 밝혔다.

기하학적 무늬를 가진 수건을 뜻하는 반다나는 미국 서부 시대에 유행한 스카프로 카우보이들이 많이 착용했다. 반다나 시리즈는 의자·담요·침낭·레저시트·왕은침낭 등 총 5가지 제품으로 구성됐다.

스키니진에 지쳤어! 고무줄 바지 뜨는 중

긴 불황으로 침체된 여성 의류 시장에서 일명 '몸빼 바지'로 불리는 고무줄 바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갑갑한 현실 속에서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고자 하는 심리가 편안한 패션에 작용했다는 게 패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고무줄 패션'이 인기를 끌면서 신세계골 트렌드 패션의 9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매출 중 64%를 고무줄 패션 관련 품목이 차지했다.

과거 고무줄 바지는 몸빼 바지로 불리며 집에서 편안하게 입는 제품이었지만, 최근 다양한 색상과 프린트·스타일로 변신을 꾀하며 외출복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가격도 1만~3만원대에서 저렴한 가격에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신세계 측은 "고무줄 바지는 허리 부분이 고무밴드나 스트링으로 처리돼 스키니진처럼 꽉 조이지 않고 지퍼를 잠그기 위해 숨을 참지 않아도 된다"며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고무줄 바지 인기에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일리브타 제공

신세계百 페리고 제품 판매

프랑스 생활용품 브랜드 페리고는 11일부터 한 달간 신세계백화점 매종 드 신세계에서 제품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11~17일은 강남점, 18~24일은 경기점, 다음달 1~7일은 본점에서 만날 수 있다.

페리고는 주방·옷장·수납·청소·욕실·여행용품 총 5가지 카테고리로, 향랫줄 빗자루부터 아이패드 가방·휴지통까지 일상에 밀접한 100여 가지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박지원기자

떠나는 이순철 남는 선동열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이순철 전 KIA 타이거스 수석코치가 시즌을 마치고 조용히 팀을 떠났다. 그를 보내는 친구 선동열 감독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8위의 성적표였다. 선동열 이순철 체제는 그렇게 2년 만에 해체됐다.

이 전 수석은 8월 초 팀이 1위에서 6위까지 떨어지자 코칭스태프 1, 2군 부분 개편 당시 2군행을 자처했다. "나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 감독은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 시즌을 마칠 때까지 함께 가자"며 만류했다. 결국 시즌 끝까지 함께 했지만 성적은 오히려 8위까지 밀어졌다.

이 전 수석은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는 돼 있었다. 2011년 10월 부임할 때부터 가진 생각이었다. 그는 "주변에서 감독과 나의 조합에 대해 말이 많다는 것을 안다. 친구인 선 감독은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1군에 그대로 남았지만 팀 전력상 반전의 기미는 없었다. 아마도 그때 시즌을 마치면 팀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정리한 듯하다. 결국 선 감독은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이 전 수석과 술자리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이 전 수석도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서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전 수석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선 감독이 그판두면 함께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 구단은 고심 끝에 감독의 임기 보장을 결정했다. 이 전 수석은 떠나면서까지 친구(선 감독)의 명예 회복을 기원했다. 원래 떠나는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기성용 "최 감독님께 사죄"

기성용(24·선덜랜드)이 SNS 파문과 관련해 최강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기성용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취재진과 만나 "감독님께 미리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그동안의 마음고생 탓인지 다소 수척한 얼굴로 입국장에 들어섰다.

12일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홍명보호에 처음 승선하게 된 기성용은 "오랜만에 대표팀에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대표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동장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유순호기자

소셜네트워크(SNS) 파문을 일으킨 기성용(24·선덜랜드)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5차전 필요없어요'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왼쪽부터) 두산 홍성흔, 김진욱 두산 감독, 염경엽 넥센 감독, 이택근, 박병호(넥센)이 예상 경기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류현진 방망이는 빛났다

애틀랜타 DS 3차전 선발 3이닝 4실점 뒤 강판… 2회 희생플라이 첫 타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6·LA 다저스)이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 선발 등판했지만 3이닝 만에 강판당하는 아쉬움을 샀다.

LA 다저스 류현진이 7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서 2회말 우익수 희생플라이를 때린 후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AP 뉴시스

류현진은 7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5전3승제) 3차전에 선발 등판해 3이닝 동안 6피안타 1볼넷 4실점으로 부진했다. 팀이 6-4로 앞선 3회말 타석 때 대타 마이클 영으로 교체됐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 포스트 시즌 진출을 경험한 류현진은 한국 투수로는 역대 최초로 선발 등판하는 기회까지 얻었다. 그러나 올해 최소 투구 이닝이라는 아쉬움만 남겼다.

이날 경기도 1회 징크스가 발목을 잡았다. 1회 1사 후 저스틴 업튼에게 2루타를 맞고 프레디 프리먼을 좌익수 뜬공으로 잡았지만, 에반 개티스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고 선취점을 내줬다. 이어 브라이언 맥캔에게 볼넷을 허용했고, 크리스 존슨에게 안타를 맞아 1회에만 2실점했다.

2회말 공격에서 류현진은 1사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 깔끔한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팀 첫 타점을 뽑아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다저스는 계속된 찬스에서 칼 크로퍼드의 3점 홈런으로 경기를 4-2로 뒤집었다.

그러나 마운드에서 류현진의 위기는 계속됐다. 3회초 연속 3안타로 무사 만루가 된 뒤 수비에서 연속으로 아쉬운 플레이를 보이며 동점에 빌미를 제공했다.

다저스는 3회와 4회 6점을 뽑고 8회에 다시 3점을 보태며 애틀랜타를 13-6으로 눌렀다. 다저스 마운드에는 류현진의 뒤를 이어 등판한 크리스 카푸아노(3이닝)를 비롯해 J.P 하웰(1⅓이닝), 로날드 벨리사리오(⅔이닝)가 무실점 호투했다. 이어 파코 로드리게스(⅔이닝)가 투런 홈런을 허용했지만, 켄리 얀선(⅓이닝)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물건이네! 물건이야~"

남성(性) 희소식

성기내 혈액유입 장애로 인해

· 잠자리에 자신없는 분
· 자연스러운 부부생활이 어려우신 분
· 부부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
· 음경이 예전같지 않으신 분

40대부터 70.80대의 분들도 간편히 사용가능하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이텍이 원하는 목적을 멋지고 당당하게 달성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조이텍의 특징 -

Event 할인행사 개업 10주년 3개월간 할인행사실시!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588-6825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Are you going to go anywhere this year? 장소 이동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I heard you were going somewhere this summer.
B. 내일 떠나는데 아직 여행 가방을 싸지 않았어.
A. That's not good! Where are you flying?
B. I'm flying to Mexico for work.

정답 I'm leaving tomorrow but I haven't packed my suitcases yet.

생생영어팁

▶ When's the earliest train to Yeosu?
여수로 가는 가장 이른 기차는 언제 있나요?

early는 '빠른'이라는 뜻이고, '가장 빠른'이라는 의미의 최상급은 the earliest입니다. 가장 빨리 떠나는 기차를 이렇게 간단히 the earliest train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 to를 넣고 목적지를 이어 말하면 ~로 가는 가장 빠른 기차라는 표현이 됩니다.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be동사 현재시제

▶ 주어에 따라 다른 형태를 쓴다

주어	be 동사
I	am
he/she/it	is
we/you/they	are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am a nurse. 저는 간호사예요.
2 James is from Canada. 제임스는 캐나다 출신이에요.
3 My parents are at home. 저 부모님은 집에 계세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he airport shuttle ______ every hour from the hotel's front entrance.
(A) depart (B) was departed
(C) are departing (D) departs

02. After ______ your business's operating needs, GTU Operations will be able to help you choose the tools and processes that can enhance your results.
(A) analyzing (B) expecting
(C) depending (D) visiting

01. 공항 셔틀버스는 호텔 정문에서 매시 출발한다.
해설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데, 주어가 단수(The airport shuttle)이므로 단수동사 (D) departs를 쓴다.
어휘 depart 출발하다
정답 (D) departs

02. 귀 사업체의 경영상 필요사항들을 분석한 후, GTU 오퍼레이션즈는 그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와 절차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해설 문맥상 '경영상의 필요사항들을 분석한 후'가 적합하므로 (A) analyzing을 써야 한다.
어휘 operating 경영상의, 운영상의 process 절차 enhance 향상시키다 analyze 분석하다
정답 (A) analyzing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4.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숫자 읽기

할인율을 읽을 때, 퍼센트(%)는 단수형으로 읽습니다.

50%	fifty percent

방 번호, 비행기 번호, 건물 번지수 등은 한 자리씩 읽기도 하고, 두 자리씩 묶어서 읽기도 합니다.

Room 414	room four one four 또는 room four fourteen
Flight No 786	flight number seven eight five 또는 flight number seven eighty-five
860 Jason St.	eight six oh(zero) Jason Street 또는 eight sixty Jason Street

전화번호에 있는 -는 읽지 않고 한 자리씩 읽습니다.

548-0392	five four eight oh(zero) three nine two
1-800-398-9932	one eight hundred three nine eight nine nine three two

Tip 1-800-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광고문에 나올 수 있는 예입니다. one eight zero zero가 아니라 one eight hundred로 읽습니다.

ETS TOEIC 공식수험서 100만 부 돌파!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한국영어교육학회 공식 인증

취업·승진을 내맘대로~
TOEIC, TOEIC Speaking

채용 필수! TOEIC Speaking
채택 기업 삼성, LG, SK, 현대자동차그룹, 두산, POSCO 등

150개 국가 14,000여 기관이 활용하는 영어 시험의 글로벌 스탠다드 TOEIC, TOEIC Speaking

▶ TOEFL, SAT, GRE 등을 출제하는 세계 최대 이해평가 전문기관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개발
▶ 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종합 평가하는 TOEIC, TOEIC Speaking
▶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영어의사소통 능력 측정
▶ 국내 시행 6년만에 누적 응시인원 100만 명 돌파: 최대 활용 No.1 TOEIC Speaking Test!
▶ 연령별, 학력별, 산업별, 국가간 비교 가능

YBM 한국TOEIC위원회

부라보콘 상단 내면에 "당첨"이 나오면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 1등 LG 디오스 냉장고(820L) 3명
- 2등 삼성 LED TV(40인치) 4명
- 3등 아이패드4(16G) 8명
- 4등 삼성 로봇청소기 10명
- 5등 황금열쇠(금 3.75g) 20명
- 6등 부라보콘 1박스 100명
- 7등 영화관람권(1인 2매) 200명
- 행운상 문화상품권 1만원권 500명

※당첨 시 상단 내면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후, 당첨 인쇄된 상단부분 발송

자세한 참여방법은 www.ht.co.kr을 참조하세요.

행사기간 : 2013년 11월 20일까지
경품지급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5만원이상(1등~5등) 경품당첨자에게는 제세공과금(22%)이 부담됩니다
※실제 경품은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이벤트의 참여(경품수령)는 만 19세 이상 성인대상입니다